



▶ 파키스탄의 도자기공

제공: WMM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릇

물레를 돌리며 예리한 눈빛으로 도자기를 빚고 있는 도공의 손놀림은 섬세하다. 오른쪽 뒤편을 보니 이미 만들어둔 도예품들이 여럿 있다.

도자기는 흙을 반죽하고 물레에 고정하여 물레의 속도에 맞춰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때 손놀림이 서툴면 흙 반죽이 이내 도자기 모양에서 비껴나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면, 반죽은 이내 멋진 도자기 꼴을 갖추게 된다. 흙은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에 따라 그릇의 모양과 완성도가 결정된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시다. 그분은 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셨다. 후회가 없다는 건 그분의 작품이 완벽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걸작품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선하신 주님은 당신의 걸작품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시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이사야 64:8) [GNPNEWS]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미 공립학교에서 ‘성경 수업’ 권장 법안 제출

국가 좌우명 ‘In God We Trust’게시 법안, 지난 해 6개 주 통과

미국의 최소 6개 주 의원들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수업’(Bible literacy)을 재고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23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법안을 제안한 노스다코타 주의 애런 맥윌리엄스 공화당 의원은 “성경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교실에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 법안이 올해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버지니아 및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소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앨라배마, 아이오와 등에서도 이 법안이 고려됐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한편 이 법안의 제안은 보수 기독교 정치 단체인 ‘프로젝트 블리츠’(Project Blitz)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도모임, 법률 회사, 비영리단체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개 주 공립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In God We Trust)’라는 국가의 좌우명을 게시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결과 6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GNPNEWS]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명기 4:10)

기도 |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허용 등,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다음세대를 일으키사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호는 2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3)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까? 당신의 존재에 세상이 아무 관심 없는 듯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여 살아갈 힘마저 잃고, 죽음을 엿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더 참혹한 상황에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인간이 있

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정한 죄의 대가로 지옥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아파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홀로 그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들로부터 배척과 조롱을 받았으며, 그 인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를 졌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



일러스트= 김경선

독의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말 당신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입니다.

아직도 고독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

음에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린 이유가 바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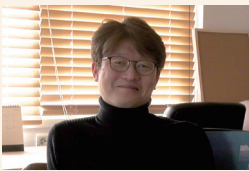
한국 교회, 네오마르크시즘에 포위됐다 2면

특별기획 |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자유를 찾아 걸어서 17시간 산을 오르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3면

인터뷰 | 신연식 감독

“예술과 영화를 버려보니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교회, 네오마르크시즘에 포위됐다

월드뷰 1월호, 심동섭 변호사
“네오마르크시즘이 교회 파괴” 주장



▶ 성 해방을 주장하는 등 좌파적 가치로 프랑스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고간 프랑스의 68 학생운동은 전 세계에 네오마르크시즘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 사진은 1968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한국 사회의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정치 경제 문화계에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네오마르크시즘이 깊숙이 들어와 윤리와 도덕 질서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겸 양병교회 담임목사)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1월호에 ‘마르크시즘에 포위된 교회’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변호사는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내에도 이 같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인사들이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고 전통적인 윤리를 파괴하는 법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위험성은 인권이나 인종차별금지, 다문화, 포용,

관용, 인도주의, 환경보호, 노동자 권익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얼굴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네오마르크시즘은 실제로는 전체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사상이 깔려 있고, 결국 기독교적 가치를 허물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이 경제에 중점을 뒀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에 중점을 둔다. 인간에게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프로이트나 그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성적 욕구를 해방해야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억

압하는 것이 사회적 기구나 제도, 윤리이며 특히 기독교적 가치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사회운동가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에 따라서 동성에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성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저급한 인간이며, 기독교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면 이슬람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네오마르크시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올바름(PC)이란 관점에 근거해 그들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인식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사상의 배후에 위험한 네오마르크시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美 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정책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려는 정부 측의 정책 시행을 허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 보장을 이유로 정책의 이행을 금지한 하급심의 판결들을 뒤집은 것이다.

미 법무부의 케리 쿠팔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가 방위에 최선이라고 결정한 정책들을 만들어 이행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2016년 6월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7년 7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전환비용과 치료비도 부담해주시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뒤집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책 시행을 6개월간 미뤘고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성에 관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전환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트랜스젠더는 군 입대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군에 복무하고 있는 공개적인 트랜스젠더나 태어난 성으로 다시 전향한 트랜스젠더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GNPNEWS]

문화행동 아트리, CAMP & SAM 훈련생 모집

(사)주님의작품문화행동아트리가 ‘문화예술사역자 양성과정’(CAMP)과 선교사훈련학교(SAM)의 훈련생을 모집한다.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현장을 섬기는 전문 문화예술사역자 양성과정인 CAMP의 모집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17세) 이상이면 누

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1월 5일~1월 31일까지. 지원서는 홈페이지(gospelartree.com)에서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등기우편일 경우, 1월 31일 우체국 소인까지) 문의. ☎ 010-7757-3185

선교사훈련학교(SAM)는 문화,

예술을 통해 오직 십자가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이 있는 자로 남자는 군필, 여자는 2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2월 4일~26일까지이며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25일 소인까지) 문의 ☎ 010-2650-9610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9 ~ 1.2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아이오와주 법원, ‘심장박동 감지 시 낙태금지’법 폐기 명령

미 아이오와주 법원이 22일(현지시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는,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살아있는 태아의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자신의 정육을 위해 태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낙태 찬성법을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삶인 것을 교회들을 통해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리핀 ‘화약고’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확대’ 국민투표

필리핀 민다나오섬 일부 지역에서 무슬림 자치지역의 범위 확대와 자치권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그동안 정부와 무장단체 간 갈등이 5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복음의 생명이 빠진 필리핀에 무슬림으로 인한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선포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깨닫고 그토록 얻고 싶었던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리비아 떠난 난민선 지중해서 침몰… 120명 중 3명만 구조

아프리카 리비아 해안을 떠나 유럽으로 이주하려던 120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탄 보트가 침몰, 3명이 구조되고 117명은 실종됐다고 19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려던 아프리카 이주자 및 난민 83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이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복음의 선포지였던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통로 되길 강청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2월 4일 ~ 2월 23일

2월 4일~2월 9일	▶전남 신안 / 익산 사랑샘교회(황**)010-3245-7818,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2.4(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2.4-6(16~18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김**)010-8432-3698, 2.4-8(10~16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2.4~5, 7~9(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2.5(0~24시)▶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2.7(22~24시) ▶서울 서초 / 마하나임심대교회(신**)010-4750-6347, 2.8(0시~24시) ▶전남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2.8(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그 외 10교회 진행 중.
2월 11일~2월 16일	▶경기 성남 / 성남금광교회(임**)010-7747-3381,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4501-0059, 2.11, 13~16(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2.11~15(14~19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2.11~16(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2.12(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2.12~13(10~13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2.13(06시)~14(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2.14(22~24시) ▶서울 서초 / 마하나임심대교회(오**)010-4701-1266, 2.15~16(0~24시) ▶경기 수원 / 머스트교회(유**)010-3399-1714, 2.16(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12교회 진행 중.
2월 18일~2월 23일	▶인천 계양 / 다윗의 열쇠(양**)010-9529-9506, ▶경기 부천 / 내동교회(이**)010-9600-1408,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2276-8221,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2.18(10~2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2.18~23(07~19시) ▶강원 춘천 / 그대로마를교회(원**)010-9328-0191, 2.19~21(10~17시)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김**)010-7423-4953, 2.19~22(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2.21(19:30~21시), 2.22(20~22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 외 15교회 진행 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특별 기획 |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3)

“자유를 찾아 걸어서 17시간 산을 오르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아프간에서 이란을 거쳐 터키에 이른 난민 가족들

터키 여정의 마지막 행선지인 흑해 인근의 J시에는 밤 늦은 시각에 도착했다. 지인과 함께 난민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도로변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유년시절 70년대 한국 골목길을 보는 듯한 낮익은 풍경이다. 계단을 올라 코너를 돌아서 석탄 포대가 몇 개 쌓인 집 문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나타난 1미터 남짓한 너비의 복도에 붙어 있는 각각 서너 평 정도의 방 2칸이 생활 공간의 전부였다. 친자매인 쇼클(가명)과 메르(가명)가 딸들과 함께 우리 일행과 식사를 하기 위해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밥에 얹어 먹을 수 있는 스튜 같은 이란 전통 음식 고르메 싸브지로 늦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다.



▶ 이란 전통 음식 고르메 싸브지

한 사람씩 5명의 간단한 자기 소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인은 배낭을 풀었다. 성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했다. 라면과 초코파이, 그리고 휴대전화 공 기계 2개. 휴대전화기는 지인이 갖고 있던 것보다 최신기종이었다. 물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 자매가 라면 봉지를 뜯었다.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섬기는 이의 기쁨을 알 것만 같았다.

-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나?

1박 2일 동안 잠만 나면 이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물었다. 나중에는 유엔난민사무소에서 하던 인터뷰보다 길다고 웃으며 말했다.

“3년 전 이란에서 차를 타고 국경으로 가, 산을 넘어 17시간을 걸어서 터키에 도착했다. 배낭 하나 둘러메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이곳에 왔다”

대화 도중 ‘인주리 운주리’라는 이란어 단어가 자주 들렸다. 우리말로 ‘이렇게 저렇게’라는 뜻이라고 한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이 단어는 음식을 만들 때, 이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계속 사용됐다.

- 어떻게 이란을 떠날 결심을 했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 재봉일과 파출부 같은 일로 가정을 꾸리며, 일하지 않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다” 두 자매의 공통된 삶의 여정이었다. 13살에 결혼한 페레는 자녀 셋을 낳았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다. 더 어려운 것은 도박에 빠진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감옥에 사는 것 같았다. 위성TV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아버지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딸들은 이 질곡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무려 8년간 돈을 모았다. 국경을 넘는데 브로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인당 8000텔레(약 160만 원) 정도. 두 자매는 마침내 디데이를 정했다.

-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

“먼저 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사내아이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다. 철조망을 간신히 빠져나와 터키 땅을 밟았다. 그러다 경찰이 비추는 서치라이트에 적발됐다. 다시 되돌아가라고 할까 봐 두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국경 인근 마을에 도착했다. 공원 벤치가 있는 곳에서 종이를 깔고 얇은 담요를 덮고 노숙하며 난민 생활이 시작됐다”

그 이후,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 신분을 확인받고 이곳까지 와서 숙소를 얻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모두 여자들로 구성된 이 가족을 보고 집주인들이 임대를 외면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할까봐 꺼려하는 눈치였다. 몇 달 만에 간신히 집을 구했다.

-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나?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더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에 이르렀다”

-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나?

“아버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 전쟁 중에 이란으로 탈출했다. 아빠가 어느 날 위성TV에 나

온 한 기독교인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 아빠가 참 어려움이 많은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러다 딸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아프간 출신인 그들은 이란에서도 난민으로 살았다. 이란에서도 난민. 지금도 난민. 나그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 지금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현지인에 비해 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참 적다. 하루 일당이 50텔레(약 1만 원) 정도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빨감을 구하지 못해,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웠고,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함께 탈출했던 막내아들은 이들을 찾아온 남편이 데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딸들이 학교에 다니며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한편의 대하드라마나 다를 바 없었다.

- 기도제목을 이야기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캐나다 같은 나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룻밤을 보내며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가감 없이 들었다. 이들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하고 헤어졌다.

난민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 영접한 난민가족

우리 일행은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 한 곳을 찾았다. 몇 년 전 아프간을 탈출, 이란을 거쳐 이곳 J지역으로 오게 됐다는 흐람(가명) 형제. 그는 한때 마약에 중독돼 삶을 탕진하다 이란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으로 오게 됐다는 그는 2년째 이곳과 다른 지역 두어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물었다.

“터키에 온 이후 아프간이나 이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지 짐작이 되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이 된다. 그러면 인사를 한다”

그의 삶도 놀라운 간증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흐람 형제가 전도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에 주목하기로 한다. 흐람 형제는 우리 일행을 교회 근처에 사는 리에(가명) 자매 가정으로 인도했다. 주님은 먼저 이들과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현지어로 찬양을 불렀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 / 바다를 창조하신 분 / 태양 빛을 밝히신 분 / 꿈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 …(중략)… 나는 구원의 축복을 당신을 통해 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찬양곡이라고 지인이 말해줬다.

-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 리에 자매에게 물었다.

“1년 6개월 전 아이들과 길을 가다가 흐람 형제를 만났다. 우리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방문해서 영화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나눴다. 조심스러워 몇 차례 거부하기도 했다가 생일에 초대를 받고 만나게 됐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던 중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초반인 그녀의 딸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성경을 주목하게 됐다. 빨리 성경을 보라는 마음이 일어났다. 성경을 읽는데 처음 느끼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 이제는 모녀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흐람 형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어떻게 이란에서 나올 생각을 했나?

그녀의 길고 긴 사연이 시작됐다. 질문은 짧았지만, 답은 길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살던 아버지와 함께 내전을 피해 이란으로 탈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삶은 듣는 이



▶ 쇼클 자매의 딸이 쇼클 태양을 그린 그림

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살 때, 마당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 사건으로 오빠는 죽고, 나는 파편이 몸 여기저기에 박혔다. 지금도 파편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혈관 바로 옆에 파편이 있는데 제거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거수술을 포기했다. 그런 때문인지 지금도 날이 콧으면 온몸이 아프다. 그때는 약을 먹고 버틴다”

아프간을 떠난 리에 자매 가족은 이란에서도 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다 15살에 결혼했다. 아직 세상을 잘 알지 못할 나이에 결혼한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아프간 내전을 피해 이란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후,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3번째 아내였다. 참고단한 삶이었다. 남편의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탈출했다” 지금도 간혹 그들이 찾아와 힘들게 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는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처음에는 신세를 한탄하고 주변에 아는 지인 하나 없어 눈만 뜨면 우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나 리에 자매는 주님을 알고 난 이후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하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행복하다.

한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이끈 흐람 형제는 흐뭇한 표정으로 리에 자매 가족을 바라본다. 자신도 여전히 난민으로 힘겹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는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끝>

[GNPNEWS]

양카라(터키)=C.K.



▶ 쇼클과 메르 자매(왼쪽 사진)와 리에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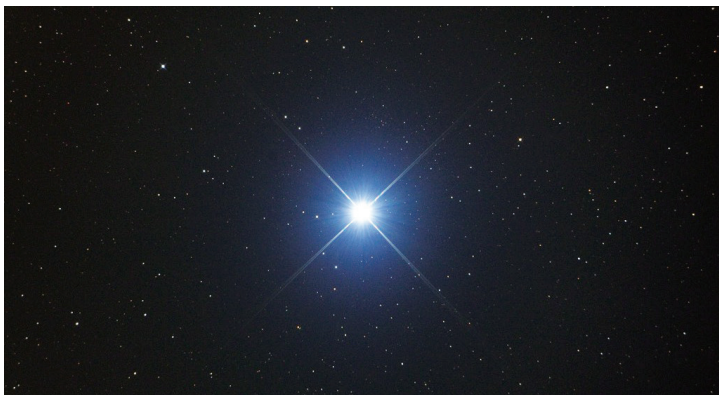
기획 | 창조 이야기(9)

우주 나이가 수십억 년 아니라는 증거가 우주에 가득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은하계는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별들의 폭발을 초신성 또는 신성이라고 부른다. 별은 30년마다 폭발한다. 만약 우주가 수십억 년이라면 수십억 개의 초신성의 잔재들이 존재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00개 미만의 초신성 잔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우주가 몇 천 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별이 생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별들은 빨간 큰 별에서 하얀 작은 별로 변한다. 교과서에는 이 과정이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모든 고대 천문학자들이 시리우스는 빨간 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



▶ 붉은 별로 알려진 시리우스가 지금은 흰 색의 별이 됐다(출처: 한국천문연구원)

얇고 작은 별이 됐다. 이는 2000~30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오프의 구름을 매년 연구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달은 지구를 돌면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1년에 약 2인치(약 5cm)씩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은 달이 옛날에는 지구와 더 가까웠다는 것을 뜻한다. 달을 지구에 더 가깝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달은 조수의 간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역제곱 법

칙을 적용해 볼 때, 만약 달을 지금 거리의 1/3만큼 가깝게 하면 중력이 9배나 강해진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14억 년 전에는 달과 지구가 거의 딱 붙어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월트 브라운은 위성의 최대 수명은 12억 년이라고 말한다. 만일 달이 지구 표면 바로 위에서 돌고 있었다면 키 큰 공룡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달에 맞았을 것이다.

혜성은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물질을 잃어버린다. 혜성

꼬리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계속 잃어버리다보면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도 혜성들이 만년 이상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면 왜 아직 혜성들이 존재하는가?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쯤은 다 없어져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한 세미나에서 태양계의 나이가 1만 년 미만이라는 증거가 혜성들이라고 말했다. 한 무신론자는 그에 대해 자기 웹사이트를 통해 반박했다. “우리가 여전히 혜성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혜성이 나타나서 없어진 혜성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1950년에 ‘오프’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밝혔다” 그들은 그것을 ‘오프의 혜성 구름’이라고 부른다. 이 오프의 구름은 5만 AU(1AU는 해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나 퍼져 있다. 아주 좋은 망원경이 없이는 39AU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명왕성도 보기 어렵다. 그러니 5만 AU 떨어져 있는 혜성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오프의 구름

을 보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은 수학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을 뿐, 오프의 구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외계생물학의 선구자였던 칼 세이건도 ‘매년 오프 구름에 대한 많은 과학 논문들이 그것의 성질, 기원, 진화 등에 대해 쓰이지만 그것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증거는 단 하나 없다’고 말했다.

진화론과 성경은 상극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시편 19:1)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진화론은 해와 별이 지구 이전에 진화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해와 달보다 먼저 만드셨다고 말한다. 진화론의 모든 것은 성경과 반대다.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진화론은 죽음이 사람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한다. 진화론과 성경은 서로 상극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인도, 기독교 탄압 1년 간 선교사 160여명 추방

인도의 유권자는 8억 50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인도에서 향후 5년간 정권의 방향을 결정짓는 총선거가 올 4~5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인도인민당(BJP)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모디 총리를 앞세워 의석 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오랜 집권당이었던 인도국민회의(INC)를 몰러나게 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인도의 주가를 높이는데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BJP는 힌두국우정당으로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념 아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로 인해 비자법이 강화되면서 인도에서 사역하던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 집계되었던 한인선교사 추방 인원도 일 년 사이 16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많은 수가 추방되거나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 현재 비자를 받은 선교사들도 대부분 허락된 체류 기간이 매우 짧고,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에 재발급과 연장하는데 고심이 많은 상태이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지교회들도 계속되는 힌두과격분자(RSS)들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들 RSS는 BJP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과격힌두청년들로 힌두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며 교회를 불태우거나 기도모임 등을 공격하는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된 2019년 기독교핍박 지수에서 인도가 5년 전 28위의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사실만 보아도 현 정권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도 기독교박해지수 10위권 첫 진입

인도의 현재 제1 야당은 인도국민회의(INC)다. 네루-간디 가문이 대를 이어 수장으로 이끌어 왔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자와할랄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소냐 간디를 이어 현재 라훌 간디가 대표로 있다. 오랫동안 집권 여당으로 활동했으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면서 지난 선거에서 BJP에게 자리를 내어주었

다. 다종교국가인 인도에서 BJP는 힌두 민족주의를 자극해 지지세력 결집하는데 비해, INC는 세속주의를 기치로 모든 신앙을 존중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 주일마다 수천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갈보리교회(출처: christiantoday.com)

맞추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 지수가 올라가고, 국외로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한 때 모디 총리와 BJP의 재집권이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BJP 집권 후 경제성장률은 연 7% 이상인 반면 농업계는 2% 정도로 많이 뒤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농민 자살률이

42%가 늘었다. 농민들의 마음이 돌아 선 것을 확증하듯 작년 12월 있었던 인도의 5개 주의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BJP의 표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NC가 대승을 거

교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2년 새에 인도에서 대거 추방된 선교사들의 재배치 문제도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정세에 따라 현지교회와 선교사역의 안전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더욱 견고하고 정결해지고 있다. 현지교회들은 지금 십자가의 총체적 복음을 들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금의 인도의 정세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현지교회들에게도 목마름이 되어 간절한 기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 나라의 참 통치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실세를 뛰어넘어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인도 총선도 오직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셔서 끝까지 이기는 편에 세워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드린다. [GNPNEWS]

서남아시아=에이미(AMY) 본지 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예술과 영화를 버려보니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형교회 원로목사와 신임 담임 목사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면서 서로 헐뜯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다. 그 가운데 교회의 민낯,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죄악이 드러난다. 그러나 진정 회개해야 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야합하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간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자는 불에 타 죽는다. 이 절망적인 결말에 주시는 단 한 줄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영화 <로마서 8:37>(2017)은 모든 일이 과국으로 끝난다고 해도, 교회의 거룩과 십자가의 승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결론 낸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상황의 ‘이김’이 되신다. 이 결론을 붙든 사람은 영화의 결말 때문에 불쾌하거나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은혜가 넘칠 것이다. 상업영화가 대세를 이루는 영화계 한복판에서 독립적인 자본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통해 십자가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영화 <로마서 8:37>을 제작한 신연식 감독을 만났다.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과 작품활동하기도

- 반갑습니다. 3대째 모태 신앙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에 가까워질 확률이나 멀어질 확률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됐을 때 개개인의 신앙으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작을 했어요. 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시를 쓰고 소설을 썼어요. 성적이나 등수에도 관심이 없고 공교육도 별로 의미가 없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시나리오를 썼는데 매체가 영화이다 보니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일 뿐, 감독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도 억지로 가긴 했지만 20살 때부터 충무로에서 작가 교육을 받고 일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새문안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8년 정도 했는데, 중등부 아이들과 30편 정도 연극도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훈련인 줄 몰랐는데 돌아보니 대단한 훈련이었어요. 중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예요(웃음)”

- 이후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치

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신앙적으로 고민을 했다가보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20살 때 연출부 막내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죠. 저는 정말 빨리 감독으로 데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하던 영화가 다 없어지고 인생이 너무 안 풀렸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이 눈앞인데 40년 동안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 20대가 그랬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 대학도 졸업 못하고, 주변 선배나 또래들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나는 아무 크레딧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만 먹고 제 자리에 있는 듯했어요. 그때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한 것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독교 영화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 인생이 안 풀려서 돌파구로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일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 교회 안에서 그런 위선을 떨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선한 영향력’이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선함’을 붙이면 내가 순식간에 선해지거든요. 내가 선한 사람이고, 우리의 목적과 이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별개인데 말이죠. 그런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 뒤로 만약 기독교 콘텐츠를 한다면 절대로 내 인생이 비루할 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인가? 질문

- 자아의 영광을 위해 영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27, 8살에 처음 연애를 했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한 달 동안 매일 만나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게는 비정상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창작 활동을 해보지 않은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죠. 찬양팀이었던 아내가 집회 중 주님께 응답을 받아서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는 시간에 C.S.루이스의 책이나 기독교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때 세상일이라는 게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를 성취한다는 그 자체가 도대체 무



그리스도인으로 영화 <로마서 8:37> 제작한
신연식 감독(루이스소니도스 대표)

슨 의미가 있는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구나” - 전도서의 깨달음을 주셨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술이 니 영화니 다 그만 뒀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려보니까 그게 우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좋아서 했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번도 좋아서 선택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우상이나 굴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상이 뭐냐면,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회나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거 왜 하는데? 물었을 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맺어있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든 표면적으로는 좋은 명분을 붙일 수 있겠지만 내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렇게 예술을 버렸을 때 내 자아가 드러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던 것, 경험했던 것, 공부했던 것들, 그전에는 각각 별개였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깐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 어떤 영화였나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민들레영토라는 카페에서 단편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300만원으로 3시간짜리 영화를 만

들었는데 그게 부산영화제, 해외영화제에 추천받았어요. 28살까지는 영화사에 가도 제작부장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서른 살부터는 대표나 회장님들만 만나게 됐어요. 여러 회사에서 상업영화 감독으로 일하다가 2009년 안성기 선배님과 <페어러브> 라는 작품부터 직접 제작을 했어요”

- 상업영화든 독립영화든 감독님 작품은 다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니깐 당연히 기독교적 관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해요.

로마서는 좀 더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죠. 언젠가 내가 정말 비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순수한 자본이 허락될 때 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대형교회 재단에서 영화제제가 들어왔어요. 해야 하는 때가 온 건가? 하다가 내부 문제로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다 교회나 다른 곳에 속해서는 정말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겠구나 생각하던 즈음 직접 제작하게 됐어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유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복음을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로마서 8:37>(이하 로마서)을 시작하게 됐어요”

- 영화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와 제작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로마서에 나왔던 내용들은 취재한 것 중에서도 극히 일부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더 충격적인 게 많아요. 저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취재도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누군가 만났는데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알게 된다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한 것은 ‘잘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걸 해도 되나?’였어요. 나는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이런 영화를 만드나? 교회 문제를 아는 것도 괴로웠어요. 그렇게 생각만 한 5년을 했어요. 다만 마음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절대로 상업적인 자본에서 돈을 받거나,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캐스팅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였죠. 그러다 <동주>라는 작품을 하면서 빛도 갠고, 돈이 딱 제작할 만큼 남았어요. 아, 빼도 박도 못하는 건가? 하면서 한 달 만에 원고를 썼어요. 죄의 문제도 처음에는 로마서 6장에서 시작하려고 했지만, 단순히 죄의 문제에서 영화가 끝날 수 없다는 생각에 톰 라이트의 책을 보다가 로마서 8장 37절로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 해요”

영화 <로마서 8:37>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 어떤 고민과 갈등이 가장 크셨나요?

“이 영화를 들고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상 받고 의식 있는 신앙인인척 하면서 위선을 떨까봐, 그게 사실 제일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영화가 잘



▶ 영화 <로마서 8:37>의 한 장면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오만가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또 엄청난 의미있는 일을 했다, 감히 이 영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된다고 하신 거다, 이건 소명이다 라는 마음도 전혀 없고요. 이 영화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 안해요. 각본과 제작으로 참여한 <동주> 이후에 제작비가 마련되었고, 그럼 이걸 해야되나보다... 그런 거죠. 눈앞에 빗자루가 있으니까 눈을 쓰는 거예요. 쓸어야 되면 쓰는 거죠” [GNPNEWS]

E.J.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인터뷰 풀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성취의 복음(1)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균형과 정의를 말할 수는 있어도 '죄 곧 나'된 인간으로서 결코 정의를 실현해 낼 능력이 없다.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해도 함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요, 한계다. 우리는 그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은혜로 15년 삶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망령을 떠난다.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일을 저지르고 난 뒤 '나 왜 이러지?'라고 질문해보지만 대답을 찾지 못한 채 후회만 남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나를 제대로 분석한다고 나를 바꿀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하

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성경은 한계에 부딪힌 인간에게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그 해답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시 139:1)는 것이다. 다윗은 인생의 영광과 치욕을 모두 맛보았다. 것처럼 양극단의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도 드물다. 그의 삶은 인간의 권모술수와 우연으로 엮인 삶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개입이 결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시편 193편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한다.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게 없다. 모든 일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안에 있었음이 깨달아지

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한다. 내 생각에 잘 되었든 못되었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과거이든, 의도적인 반역과 죄이든, 심지어 미래까지 다윗은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시 139:5)고 고백한다.

어느 날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 다른 모든 형들을 뒤로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다윗에게 상황과 조건은 보장되지 않았다. 당하는 다윗의 편에서는 수많은 아슬아슬한 과정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기름을 부은 그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고야 말았다. 계수조차 할 수 없는 역사의 변수들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결정은 그대로



일러스트=노주나

이루어졌다. 다윗에겐 부르시고 안수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고백밖에는 없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지식이 기이하여 능히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선택까지도 아신다(시 139:3). 나의 말에 담긴 진위를 나 자신이 알지 못

할 때조차 주님은 알고 계신다(시 139:4). 그런 하나님께서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나를 정확히 안다고 하시며 그분의 주권 아래 두셨다. 그 지식이 기이하고 놀랍다(시 139:6). (2017년 4월)〈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29)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히브리어 부정어 “로”(**לֹא**, not, -하지 말며)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 “너희는 -하지 말며”로 번역되는 단어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지니, 영원토록”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개역 성경은 “말지니, -말며, -말며”로 번역을 했다. 히브리 본문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לֹא**”(로)를 사용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말지니, 말지니, 말지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이 한글 성경과 다른 점은 이 부정어 “절대로 앞으로 하지 말 것”이라는 뜻을 가진 “**לֹא**”(로)를 세 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표준 새번역은 영원한 금지 명령이 아닌, 일시적인 금지 명령으로 두 번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의 실수를 한 셈이다.

성경은 수 병행어법(number parallelism)을 통해 강조를 표현하고 있다. 숫자 “3”은 완전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될, 완전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은 히브리어 전치사구 “**לָךְ**”(라켄, for yourselves)이다. 히브리어 전치사구 “**לָךְ**”(라켄)은 2인칭 복수 형태, 전치사에 붙은 대명사 접미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다. 이스라엘 백

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들을 절대로 영원토록 만들지 마!” 개역 개정이 번역한 “자기를 위하여” 보다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 정확하다. 영어 성경은 대체로 ‘for yourselves’로 적합하게 번역했다. 그러나 NLT는 중요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다.

나, 나, 나 오로지 나를 위하여 병든 자아를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단어야말로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할 말씀이다. 공동 번역은 이런 의미를 부분적으로 잘 살렸다. “너희는 우상들을 만들어 모시지 마라” 우리는 한 우상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다시 또다시 복음이다 말하면서도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공산(公算)이 매우 높다.

다음은 히브리 단어 “**עֲלִילָה**”(엘릴림, 우상)을 보자. 히브리 단어 “우상, 이방신”은 정확히 번역하면 “우상들”(idols)이다. 히브리어로 우상, 우상들은 하나님과 단어가 같고 또 비슷하다. “우상”(엘)이 “하나님”(엘)이 될 수 있다. 레위기 26:1에 쓰인 우상들 “**עֲלִילָה**”(엘릴림)은 “엘로힘”(**אֱלֹהִים**)과 비슷하다. 히브리 한 단어가 주는 교훈은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의 신관(神觀)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병든 우상(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שַׁבָּתוֹתַי**”(샤브토다이, 안식일, Shabbath)이다. 히브리 성경은 복수(브토타이)로 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두려움, 경외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다.(사 66:2)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복수)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에 따르면, “안식일은 존재론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의 장소이다” 이 시간이 부재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99.9 %이다. 출애굽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자기를 섬길 수 있고 보이는 것 즉 우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무엇을 만들며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우상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참으로 (이제)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미디어 선교의 최전방 웹사이트 동역자 찾습니다



진리의 전쟁에서 복음의 최전선을 지킬 미디어 전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 대상	워드프레스에 관심 있으신 분
사역 내용	복음기도신문(gnpnews.org) 한국어 영어 일어 신문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모집 기간	수시

미디어선교사학교 제4기 훈련생 모집

지금은 복음을 외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며 믿음의 증인을 발굴하고, 열방의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는 분은 문을 두드리십시오.

모집 대상	미디어 선교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 (복음학교 수료자)
훈련 기간	2019. 3 ~ 2020. 2
훈련 방법	공동체 생활
원서 접수	2019. 2. 23

문의



gnmedia@gnmedia.org



070-7417-0408~10, 010-6326-4641



“내게 그림 그리는 것이 예배가 됐다”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즐기 위하여 하는 정기적 행동이다.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다. 말씀을 통해 배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미는 우상숭배일까? 우리는 취미를 갖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취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역하는 존재적 죄인이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이 되었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땐 죄의 관성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취미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취미로 하는 운동도 처음엔 즐겁게 시작하지만 곧 승부욕이 올라 운동을 잘하는 지체들만 내편이 되게 하고 이기지 않으면 짜증과 불만이 올라온다. 또 여러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세상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시 40:16)

취미의 목적은 ‘기쁨’ 그렇다면...

취미의 목적은 한 마디로 ‘기쁨’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이뤄진다. 이 교제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한쪽에서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시편 40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주께 큰 영광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취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 중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분과 교제했다. 그런 다윗에게 나타난 삶의 행동은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시를 짓는 일이었다. 그저 악기 연주를 현란하게 하거나 멋진 말로 즐거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누린 것이었다. 취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이다. 그렇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나의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 그리는 게 단순히 재미있



일러스트 = 이예원

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만난 이후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림을 그리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게 하셨고 이 행위가 예배가 되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주신 수많은 달란트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말을 하거나 밥을 먹어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올려지는 최고의 영광이자 취미가 될 것이다.

[GNPNEWS]

한 샘(19)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18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 50년 전 “납치” 미해결

유엔인권사무소, 한국인 납치사건 동영상 공개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기독교 박해가 더 많은 국가에서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박해점수 94)이 2019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국가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9 박해 감시 리스트’(Watch List)를 통해 최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20~40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의 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이 중 5~7만 명은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된 사람들 기억해 주기 바라

한편,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납북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 규명과 생사 확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1일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을 조사하는 동영상

을 공개했다.(<https://youtu.be/VJnMHAau2w4>)

특히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50년 전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는 1969년 12월 11일에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북한 공작원의 비행기 공중 납치로 북한으로 끌려갔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북한은 1970년 2월에 납치한 사람들을 대부분 송환했지만, 황원 씨 등 일부는 제외됐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 등 11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49년 이상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미일 이사장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에게 잡혀갔던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01년 결성된 협의회를 통해, 남북 관련 사료들을 발굴하고 납북자 가족들과 납북됐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납



▶ 1969년 비행기 공중 납치로 실종된 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는 황인철 대표(출처: 유튜브 캡처)

북피해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특별법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25 전쟁포로 500명 생존 추정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서울사무소가 조사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납치 문제라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진상 규명과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북한에 의해 납북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최소한 5만 명의 한국 국군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들 중 약 500명의 생존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3835명의 한국 국민들이 한국전쟁 종전 이후 북한에 의해 체포되거나 납북됐으며, 이 가운데, 516명의 한국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에 의해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GNPNEWS]



성도의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이다. 그때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회개의 역사를 계속 불리일으켜야 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골방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영적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기도는 다른 영혼들의 마음이 주께 순복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대신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하라.

성도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성도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대상에게 임한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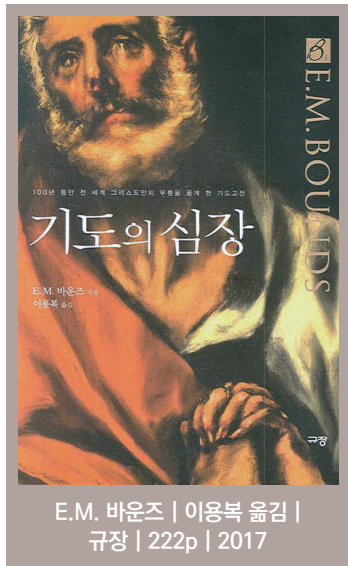
<제자도(2012),
오스왈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E.M. 바운즈 <기도의 심장>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기도이며,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가 기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E.M. 바운

즈는 기도의 시작인 우리의 심장 즉 마음에 대해 먼저 다룬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한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의 심장, 첫 번째는 믿음이다.

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신뢰에 이른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높은 곳으로 솟아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

또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하고 순종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참된 기도는 사람들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더 이상 허공을 치는 맥 빠진 기도가 아니다. ‘기도 따로 나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의 기도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마음이 삶과 분리 될 수 없듯 기도와 삶은 분리 될 수가 없다.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기도의 심장 두 번째는 갈망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갈망은 바라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집중시켜 열정을 품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구하게 만든다. 갈망이 없다면,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푸념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서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집요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한 기도이다.

세 번째 기도의 심장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물결이 솟아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말씀은 기도에 활력과 뜨거움을 제공한다”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인간의 내면은 골수까지 찔림을 받고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게 되고, 성취될 때까지 구하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말씀은 기도의 물결을 일으킨다

2019년 새해 첫 날, 하루 동안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녹아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 이후 내게 크게 달라진 일이 있다. 그것

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더욱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과 열방이 주님을 전부로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갈망이 더해졌다. 말씀 묵상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지고, 주님이 묵상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큰 열정으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심장에 불이 붙어 버리면 자아의 모든 욕구가 잠잠해 지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나와 모든 교회의 심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 더욱 타오르길! 엘리야의 간구에 번째단 옆에 있던 도랑의 물까지 훑아버린 하나님의 불이 모든 기도자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시길!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부당한 상황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포장지였어요

얼마 전 섬기고 있던 훈련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훈련생과 섬김이들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각 자리로 파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수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훈련생과 섬김이들을 축복해 줄 꽃과 수료증, 맛있는 식사, 그리고 잔치에 빠지면 안 될 떡도 미리 주문했다. 수료식 당일 아침, 주문했던 떡을 찾으러 떡집에 들렀다. 그런데 사장님은 금시초문인 듯한 얼굴로, 아들에게 주문했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다.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는 사장님의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사장님, 아드님과 함께 운영하는 떡집인데 아드님께 주문을 했는데 놓친 거라면 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가요? 가정집에서 먹으려고 조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떡을 주문했다는 건 행사가 있어서 주문을 한 건데 이걸 큰 실수예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또박또박 쏟아냈는데 순간, ‘오늘 무슨 날이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동시에 ‘이 분이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면... 찔림으로 더 이상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미 만들어진 떡을 조금 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나왔다.

이 사건은 며칠 간 계속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은 그분의 무책임에 대해 나는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사무엘하 16장 차례였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장면에서 주님은 다윗의 반응을 통해 나를 멈춰 세우셨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무섭게 혼쭐을 내줘야 신하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좀 세워질텐데, 시므이의 머리를 베려는 그의 신하에게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말하며 잠잠히 모든 모욕을 받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와 연관 있음을 알았고 자신 또한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라



일러스트= 이수진

는 인식이 그를 잠잠케 했다. 그에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예수님이 보였다. 그리고 굳이 비교해보려 하지 않아도 사람 냄새나는 ‘나’도 함께 보였다. 진리의 빛이 나를 조명하셨다. 부당하게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포장지와 같은 것임을 너무 늦게 보게 되었다. 떡집 사장님의 반응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했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과 부끄러움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 때론 부당한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머리 싸매고 고민케 되는 일이 내게 다가오면 포장지만 보고 원망과 시비를 가리기엔 발 빠른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마주하곤 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선교사라는 옷을 입어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자로 주님이 다시금 불러주셨다. 명분과 이치를 자분자분 따지려는 내게 긴 말로 설득치 마시고 그저 십자가만 보여주시기를... 면목이 없지만 기도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나를 떠난 우묵한 자리를 계속하여 잊어버리는 사이, 어느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내 마음 안에 동지를 틀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며, 다시 첫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잊지 말자. 저주받기에 합당한 나였음을, 그리고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언제 기회가 되면 떡집 사장님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싶다. 사랑하지 못해 죄송했노라고, 저주받기에 합당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사장님도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원하노라고. [GNPNEWS]

구경선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1. 11 ~ 1. 24 (가나다 순) 개인

강종채 강주선 김경선 김동영 김선희 김유남 김호성 손에스터 윤경석 은종숙 이동철 이현희 정금자 조정미 주유순 차인순 최정숙 황하임

교회 및 단체

모리아선교회
새순교회
은혜신일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